

# 나의 '業'이 지금의 나를 결정짓는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 18. 인간 형성(形成)의 원리 ①

인간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전들이 말하는 바는 특히 그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계(偈)에서 강조한 것처럼 2가지의 측면에 관련된다. 그 하나는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의 부정이며 그 두 번째는 그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원리의 제시이다.

두 가지의 측면 가운데서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일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계(偈)를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중점을 두었다. 물론 붓다가 바라문적 사회제도에 카스트에서 명백하게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은 결코 뜻 없는 일은 아니었다. 거의 3천년에 이르는 카스트의 긴 역사에서 그 명백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오직 다만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도 민중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만일 붓다를 카스트 제도에 반대한 사회 개혁자(改革者)로 본다면, 그는 사회 개혁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은 그가 사회개혁자로서 행동한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형성될 수 있을까 그 한가지 점에 있었다. 그리고 인간 형성을 위한 최대의 요인(要因)으로서 '행위'를 주장하였다. '행위'야말로 인간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리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두 개의 계(偈)가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 먼저 이 주장에 관련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만이 아니다. 경전은 가끔 '사대소성(四大所成)'의 인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이것을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경전은 때로는 '음식소성(飲食所成)'의 인간을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밥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시 또 경전의 말은 '부모소성(父母所成)'의 인간도 말하고 있다. 부모 없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자질(資質)도 그 육체도 환경까지도 부모로부터 얻는 것이 매우 많다. 이것도 또한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라문들은 그 '출생'을 인간 결정의 원리로서 가장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그 '출

생'으로써 인간결정 최고의 원리를 삼는 바라문의 견해를 배척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에 지배되는 경우도 많다. 또 '출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도 많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소여(所與)이며 그 소여(所與)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사람은 스스로를 형성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하여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만들어 간다.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붓다가 그 관심을 집중한 점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기형성 작업에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인간형성을 위한 최대의 요인은 '행위'가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업설(業說)인 것이다.

업(業)의 넓이와 깊이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또한 사람은 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며 그 '행위'에 의해서가 치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편에 선다. 따라서 불교의 업설(業說)은 우리들의 견해와 전혀 이질적(異質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견해와 불교의 업설 사이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의 상이점(相異點)이 있다.

그 첫 번째는 '행위'라는 말이 갖는 깊이와 넓이에 관해서이다. 우리들은 '업(業)'이란 말을 '행위'라고 번역한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도 불교에 있어서가 훨씬 더 넓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들이 행위라고 말할 때는 거의 몸으로 행하는 행위만을 뜻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업'이라고 말할 때는 다시 입에 있어서의 행위 즉 구업(口業) 및 마음에 있어서의 행위 즉 의업(意業)까지도 포함한다.

사람은 몸에 있어서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또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한다.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는 몸으로 해서 생기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더 많으며, 또 훨씬 더 심각하다. 사랑하는데 있어서도 몸에 있어서의 행위는 훨씬 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의업(意業) 즉 마음에 있어서의 행위는 시작하면 구업(口業)이 되며 또 신업(身業)이 되는 그 근원이기 때문에 불교는 여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가장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신업(身業)만을 문제로 삼는 좁은 견해는 불교의 소위신(身)·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된 전등사 업경대. 인간의 죄업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이 같은 지옥에 대한 묘사는 스스로의 행동을 삼가게 선업을 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바른 인간 형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口)·의(意) 삼업(三業)을 문제로 하는 넓은 견해에 많은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두 번째에는 그 '행위'가 맺는 결과에 관해서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행위'의 결과를 말할 때는, 우리들의 관심은 주로 그것이 바깥에서 맺는 결과에 초점이 쏠린다. 그것과는 반대로 불교의 업(業)에 대한 사고방식은 그것이 바깥을 향해서 맺는 결과와 함께 안을 향해서 맺는 결과에 대해 더 관심을 쏟는다. 예를 들면 도적질을 한다는 하나의 신업(身業)은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재물을 잃는다는 것 외에도, 혹은 그것이 탄로가 나서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인간형성에 있어 지을 수 없는 오점(汚點)을 남긴다는 점이다.

또 예를 들면 사람을 악담한다는 하나의 구업(口業)을 들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때 악담을 들은 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그 자신은 마음속에 비참한 느낌을 가질 것이며 또 그 자신의 인간 형성에 좋지 못한 면

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자설경(自說經)』의 한 계(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선(善)을 일삼는 자에게는 선(善)을 행하기 쉬우며 악(惡)을 거듭하는 자에게는 선(善)을 행하기 어렵다.

그것은 '행위'가 인간형성의 요인(要因)임을 단적으로 말하는 말이다. 거기에서 불교의 소위 숙업(宿業)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이다.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업(業)이며 오늘 내가 이러한 인간으로서 있는 이유는 모두 내 과거의 업(業)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표피전박(表皮淺薄)에만 머무는 행위의 사고방식으로서 주목해야 할 깊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숙업(宿業)을 설명함으로써 마침내 숙명론(宿命論)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지나친 일은 우리들이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 좌선에만 치중말라

중국의 임제선사는 그의 어록에서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좌선(坐禪)을 기본으로 하되, 가고(行), 머물고(住), 앉고(坐), 눕고(臥), 말하고(語), 침묵하고(默), 움직이고(動), 고요할 때(靜)에도 간절심 하나를 생각을 모아 가라는 것이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나 조금은 다른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청원 선사에 게는 마조라는 제자가 있었다. 마조는 날이면 날마다 나무 그늘 밑 바위에 앉아 좌선하는 모습으로 정진을 거듭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런 제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맨날 앉아 있는 자세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제자의 대답을 듣고 스승은 벽돌과 기왓장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는 스승은 앉아 참선 중인 제자 곁에서 벽돌로 기왓장을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제자가 스승에게 대들 듯 물었다.

“스승님께서 벽돌에 기왓장을 문질러 대체 무엇을 얻고자 그리 요란스럽습

다. 좌선에만 치중해 훈련받는 병사처럼 잘 짜인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지 말 일이다. 자유는 틀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개 해석하길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생각을 내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머문 바 없이 생각을 내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와 부처 정도의 경지에 이른 성자(聖者)들만이 가능할 일이다.

눈, 코, 귀, 입, 몸의 경계마다 생각의 생멸(生滅)이 되는 게 우리네 중생이다.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게 범부의 삶이요, 일상적 보편화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번에는 '이생기심(而生其心)'부터 풀어보자.

말미암아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거기에 집착해 머물지 말라. (應無所住) 중생들의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 앉아 있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무집착의 자유인 돼야 한다

니까?”

스승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벽돌에다 기왓장을 문질러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제자가 조소 투의 편지를 던졌다. “백날 갈아보십시오. 기왓장이 거울이 될 수 없을 테니까.”

그러자 스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네. 그대 또한 백날 앉아 있어 보게. 부처를 이룰 수 없을 터이니.”

다음은 육조 혜능에 대해서이다. 혜능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는 소리에 출가를 결심해 오조 홍인의 문하(門下)에서 행자로서 방아 찧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행자 신분으로, 머리 기른 거사 신분으로 오조 홍인 문하의 천여명 정진 대중을 따돌리고 마음 열린 선지식이 되어 육조로서 오조의 법을 이었다.

육조 혜능은 사미계도 받지 않는 행자였고, 긴 머리로 자르지 않은 거사 신분에 그것도 출가 후 몇 개월만에 부처를 이루었다.

제발이지 한국 불교계, 특히 선원을

머물러 있으면 병이 되고 탈이 생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하여 버린 자는 얻는다. 비우면 가득하다.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법정 스님은 텅 빈 총만으로 번역했다. 예지 넘치는 바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신도들에게는 배품의 보시행을 입이 닿도록 강조하면서 스님은 주머니 텅고 비우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이슬우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슬배만이 아닐까 싶다.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비밀 통장이 있고, 비자금도 있고, 거기에 해가 거듭될수록 통장의 액수가 불어난다면, 그는 저축왕은 될지 모르나 출가 수행승은 아닐 터이다.

수행할수록 무소유(無所有), 무집착(無執着)의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비울수록 자유로워진다. 해탈을 이상향으로만 앞세우지 말고, 오늘 당신과 나는 빈주먹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진리를 알면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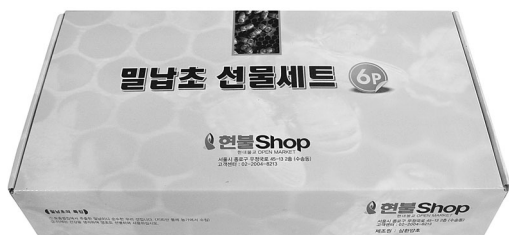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썩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썩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썩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달취효과로 잠lessness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도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